

# 21세에 역대급 커리어...KIA 정해영 타이거즈 최초·최연소 2년 연속 30SV

21세 1개월 1일로 KBO 역대 최연소 기록 갈아치워



KIA 타이거즈 마무리 정해영(21)이 다시 한 번 최연소, 최초 기록을 작성했다.

정해영은 24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경기 3-0으로 앞선 9회 마운드에 올라와 마티니, 손아섭, 노진혁을 모두 좌익수 뜬공으로 돌려세우며 시즌 30세이브 껍데기를 올렸다.

2020년 광주제일고를 졸업하면서 KIA의 1차 지명권을 받았던 정해영은 지난해에 이어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초, 2년 연속 30세이브 기록을 달성했다. 종전 30세이브 기록은 정해영을 비롯해 5명 만이 달성했다. 선동열이 지난 1993년과 1995년, 임창용이 1998년, 윤석민이 2015년 기록했고 지난해 정해영이 30세이브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2년 연속은 없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한 번 30세이브를 기록하면서 타이거즈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또한 지난해 KBO 최연소 단일 시즌 30세이브 기록을 달성했던 정해영은 2년 연속 30세이브 역시도 최연소 기록 보유자가 됐다. 21세 1개월 1일로 KBO 역대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종전 최연소 기록 보유자는 임창용으로 1998년 해태, 1999년 삼성에서 2년 연속 30세이브를 달성하며 기록한 만 23세 2개월 7일이었다.

역대급 레전드 투수들이 많았던 타이거즈 역사에서도 정해영은 역대급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난해 풀타임 클로저로 도약한 뒤 역사에 이름을 스스로 새기고 있다.

정해영은 "구위가 올라오면서 자신감도 생겼다"며 "(프로) 3년차에 2년 연속 30세이브 기록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팀에서 믿고 기용해주었고, 다양한 임무를 완수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내 힘으로 해낸 세이브는 10개도 안 될 텐데, 형들이 수비 등 많이 도와줘서 세이브를 하나하나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 부상 시달리는 女골프 에이스...LPGA 우승 전선 빨간불

고진영 손목·전인지 쇄골·김효주 목 부상  
올해 한국 여자골프 LPGA서 총 4승 그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들이 나란히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월 초부터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고진영(27·솔레이어)은 손목이 아프다.

고진영은 지난해부터 왼 손목 통증으로 고생했다. 손목에 피로가 누적돼 있으며 주변 근육 사이에 염증이 생긴 상태다.

이에 따라 고진영은 9월부터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있다. 고진영은 다음달 20일 강원도 원주에서 개막하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출전을 목표로 재활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전인지(28·KB금융그룹)는 쇄골 쪽을 다쳤다.

이달 국내 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 출전했던 전인지는 흉곽출구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흉곽출구증후군이란 쇄골 아래 혈관과 팔 신경 부위가 눌려 팔과 손 등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에 따라 전인지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과 여선던트 LPGA, 메디힐 챔피언십 등 3개 대회를 거른다. 전인지는 재활 후 고진영

과 마찬가지로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통해 복귀를 시도한다.

김효주(27·롯데)는 담이 걸려 고생하고 있다.

김효주는 OK금융그룹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출전을 위한 연습 중 목에 담이 걸리는 증세를 겪었다. 김효주는 대회 내내 목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최종 함께 6인더파로 선전하며 공동 11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처럼 여자 골프 에이스들이 잇달아 부상에 신음하면서 올해 4승을 합작한 한국 여자골프가 2011년(3승) 이후 최악의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

## 제네시스 챔피언십 내달 6일 개막...우승 시 3억+GV80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서 개막  
총상금은 15억원, 우승상금은 3억원 규모  
PGA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등 출전권

한국프로골프(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대회가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 소재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파 72)에서 열린다.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2022 시즌 19번째 대회다. 총상금은 15억원, 우승상금은 3억원이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3억원과 부상으로 제네시스 GV80이 제공된다. PGA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PGA투어와 DP월드투어 공동 주관 대회인 제네시스 스퀘어 오픈, 더 CJ컵 출전권도 주어진다.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이번 시즌 가장 높은 제네시스 포인트(1300점)가 걸린 대회다.

제네시스 포인트 1위에 위치하고 있는 서요섭(26·DB손해보험)은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선수라면 누구나 우승하고 싶은 대회"라며 "상금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우승으로 해외투어



2021년 \_제네시스 챔피언십\_ 우승자 이재정. (사진=KPGA 제공)

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228.7포인트 차로 제네시스 포인트 4위에 자리하고 있는 김비오(32·호반건설)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1,300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 포인트 순위를 1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선수들 간 격차도 벌릴 수 있어 올해 제네시스 대상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대회"라고 짚었다.



2022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ATP250)에 출전하는 정현 선수가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 '허리 부상 털고 2년만에 복귀' 정현 "코트에서 먹고자고 싶은 정도" 소감

허리 부상을 털고 2년 만에 테니스 코트로 돌아오는 정현(26)이 달라진 마음가짐을 드러냈다.

정현은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랜만이다 보니 인터뷰를 하는 것만으로 떨린다. 재활을 마치고 코트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코트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만으로 좋다"고 밝혔다.

정현은 이날 시작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오픈 복식에 권순우(25)와 한 조로 출전한다.

2018년 호주오픈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대회 단식 4강 진출 신화를 써낸 정현은 허리 부상으로 인해 2년 동안 코트에 서지 못했다.

이번 대회는 정현이 2020년 9월 프랑스 오픈 예선 이후 딱 2년 만에 치르는 공식 대회다.

긴장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나선 정현은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코트에 서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처음 테니스를 시작할 때만큼 즐겁지는 않았다. 선수니까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었다"며 "하지만 복귀를 결정한 뒤 코트 위에서 보낸 두 달 간의 시간이 즐거웠다. 코트에서 먹고자고 싶은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금은 코트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지금은 소중한게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재활에만 2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은 정현은 "2년 동안 대회에 나서지 않았지만,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코트에 가서 실전 테스트를 했다. 몇 차례 시도했지만 다시 허리 통증이 생겨 다시 재활했다"며 "이런 과정이 반복되니 복귀가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정점을 찍었던 2018년 호주오픈 당시와 현재 몸 상태를 비교해달라는 말에 "아직 실전을 치르지 않아 그때와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답한 정현은 "허리에 통증은 덜 느끼는 상태다. 심적으로 편한 곳에서 대회를 치르면 몸이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복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2년 간의 재활은 그의 마음가짐만 바뀌 놓은 것은 아니다. "재활을 하면서 나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회복해야 하는지 배웠다"는 것이 정현의 말이다.

정현은 "2년 동안 정신적으로 힘든 면이 있었지만, 성격 자체가 답답한 편이라 테니스를 그만두고 싶은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다"면서 "프로 선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재활하는 것도 직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답히 전했다.

정현이 권순우와 짝을 이뤄 복식을 치르는 것은 2016년 10월 중국 닝보 챌린저 대회 이후 약 6년 만이다. ATP 투어 대회보다 한 등급 아래인 챌린저 대회에서 당시 정현-권순우 조는 8강에서 탈락했다.

"권순우와 호흡을 맞추는 것은 몇 년 전 챌린저 대회 이후 오랜만"이라고 떠올린 정현은 "어느 파트너와 복식 조를 이루든 작전이 없는 것이 작전이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다. 순우와도 그렇게 경기를 펼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정현은 "순우와 연락도 자주하고, 편하게 지낸다. 권순우는 감각이 좋다. 코트에서 잘 뛰고 공격적인 선수다. 코트에서도 둘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임용규와 한 조로 복식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정현은 "당시에는 고교 시절에 경험이 없는 상태였고, 용규 형이 많이 이끌어줬다. 지금은 둘 다 투어 경험에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한다"고 차이점을 짚은 뒤 "제가 복식을 못해서 단식만 한다고들 생각하는데 복식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심고 싶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정현은 몸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ATP 서울오픈 챌린저와 부산오픈 챌린저에도 출전할 계획이다.

정현은 "서울 챌린저를 단식 복귀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대회와 서울, 부산 챌린저를 치른 뒤 몸 상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음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랜만에 코트에 서는 만큼 아직 큰 목표는 세우지 않았다.

그는 "지금 예전의 좋은 경기력을 찾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무리하고 싶지 않아서 첫 대회에 복식만 출전하기로 한 것"이라며 "ATP 투어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어서 어떤 목표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일단 부상이 없는 것이 첫 번째다. 내 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목표를 생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박성현, 올해 첫 국내대회 출전 예고...슬럼프 탈출 시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박성현(29·솔레이어)이 제22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규 투어 중 올 시즌 국내 마지막 메이저 대회다.

제22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상금 12억원, 우승상금 2억1600만원)은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경기 여주시 블루헤런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박성현은 LPGA 데뷔 첫해 신인상, 상금왕,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며 신인 자격으로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대기록의 주인공이다.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은 최근 성적이 반동할 기미가 보이는 박성현이 올해 처음으로 참가하는 국내 정규 대회다. 박성현은 2019년 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이후 우승 없이 슬럼프를 겪고 있다.

박성현은 현재 출전하고 있는 미국 LPGA 대회장에서 골프 팬들에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 출전하고 올해는 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대가 된다"며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